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도쿄해상HD,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 신설

-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홀딩스는 신흥 보험시장 진출업무 전담부서를 올해 7월 신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신설 예정인 부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진전으로 일본보험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보험시장 진출 관련 업무를 일원하여 원활한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 및 한국을 담당하는 ‘중국·동아시아실’, 서구지역을 담당하는 ‘해외손보 제 1그룹’, 중남미 및 중동아시아를 담당하는 ‘해외손보 제 2그룹’ 외에 신흥시장 담당 부서를 분리·독립시켜 해외사업 부서를 재편한다는 구상임.
 - 아울러 ‘글로벌 인재 개발 그룹’을 신설해 신흥시장 담당 부서 및 기타 해외 현지 법인의 인사관리와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현재 약 80여 명에 달하는 해외사업 담당자들도 대폭 증원하기로 함.

- 이번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의 신설은 신흥시장 특성상 지역마다 판이하게 다른 법률규제 및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진출 성공의 열쇠인 만큼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2000년부터 이미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온 도쿄해상홀딩스는 재작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콘솔리데이트 및 영국의 킬른 등을 인수하는 등 M&A를 통해 업계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신흥시장들의 경우 보험 선진지역에 비해 법규 체제가 대체로 미비하고 국가들마다 시장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외사업 부문과 차별성이 필요한 만큼 이번 도쿄해상홀딩스의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 신설은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6/29)